LG화학, 파주 LG산업단지 입성

파주도시기본계획 사실상 확정 ... 140만평에 전자·화학 4사 입주

경기도 파주시에 LG그룹 계열사 4사가 입주하는 30만평의 LG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파주시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해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LG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12월18일 발표했다.

파주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끝내고 경기지방공사와 함께 사유지(400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그룹이 모두 27조원을 투입하는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LG필립스 LCD 단지를 포함해 총 140만평으로 확대되게 됐다.

LG산업단지는 LG그룹이 앞으로 10년 동안 1조8000억원을 투자해 LG필립스 LCD단지 인근인 문산읍 내포리 일대 30만평에 조성해 전자, 화학 등 4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가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 국내 대기업 8개 업종의 공장 신규건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2006년 초부터 추진돼 왔다.

LG그룹 관계자는 "LG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가능해져 21세기 국가성장동력인 LCD 클러스터가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클러스터 조성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에 따른 생활권 배분과 단계별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시기 등의 조정작업을 거쳐 2006년 연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8>